나주 혁신도시 예정지 일대

'싹쓸이 절도' 판친다

경운기·쇠붙이 등 마구잡이로 쓸어가

나주 혁신도시 예정지 일대에 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혁신도시가 들어설 금천면과 산포면 일대는 최근 보상이 마무리되면서 빈집이 늘어나자 고철 등을 노린 절도가 급증하고 있다.

나주시 산포면 남모(75)씨는 최근 집을 비운사이 마당에 있는 경운기를 도난당했다. 인근 마을에도 고철 값 폭등으로 과수원 지주대는 물론 부엌에 걸려 있는 무쇠 솥까지 뜯어가는 '마구잡이 절도' 피해가 늘고 있다.

주민들은 "보상을 받고 이사하기 무섭게 빈집에 침입해 쇠붙이 등 돈이 될만한 것은 싹쓸이하고 있다"며 "아직 이사하지 않은 주민들은 집을 비우지 못한 채 불안에 떨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혁신지구 예정지내 임야에 있는 조경수 등 값비싼 나무 상당수가 불법 채취로 외부로 빠져 나가고 있으나 관계 기관이나 시공사측은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예정지내 임야의 10%인 1천800여 그루는 혁신도시내 공원조성시 옮겨 심게 돼 있어 불법 나무 채취 방지가 시급한 실정이다.

주민보상대책위원회 박경석 사무국장은 "시행사인 토지공사에 경비를 세워 순찰을 돌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절도범 경비는 경찰 임무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노인 백내장 수술 500명으로 확대

담양군, 내년까지

지난해 전남지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노인들에게 무료 백내장 수술을 해 준 담양군이 내년까지 관내 모든 노인들에게 무료 시술을 확대한다.

담양군은 이를위해 올해 8개 읍면 5천명에 대한 눈 검사를 실시해 대상자를 500명으로 늘린다.

담양군은 지난해 금성면 등 4개 면 1천800명의 눈을 검진한 뒤 300명에게 무료 백내장 수술을 실시한 바 있다.

수술 대상은 시력이 0.3 이하인 만 60세 이상 지역 주민이다. 담양군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함께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노인들의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담양군 관계자는 "내년까지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지역 내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수술을 마쳐 밝은 눈을 선물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장필수기자 bungy@

보성 녹차 올 첫 수확

올해 첫 녹차 수확이 청명인 지난 4일 보성군 회천면 양동마을에서 열렸다. 녹차는 곡우를 전후해 수확해 왔으나 온난화로 온도가 높아지면서 수확시기도 앞당겨졌다.

이날 밭에서 갓 따온 녹차잎은 연푸른 빛깔에 크기가 1~2㎝로 이물질을 따로 골라내는 고르기와 커다란 솥에서 가공하는 덖기 작업을 거쳐 청명차로 탄생했다.

청명차는 아미노산과 비타민이 매우 풍부해 우전차보다 더 나은 품질의 고급차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보성에서는 다음달 3일부터 6일까지 '대한민국 녹차수도 보성'을 주제로 '제 34회 보성다향제'가 열린다.

/보성=지광현 기자 light64@

완도 '유채꽃길 걷기대회'

18일 명사십리, WHO 건강 도시 가입 기념

완도군이 오는 18일 신지면 명사십리 유채꽃 단지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건강 도시연맹' 가입 기념 '유채꽃길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군은 지난해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로 '건강의 섬' 완도 이미지를 드높이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명사십리 해수욕장 주변 58.5㏊에 전국 최대 규모의 유채꽃 단지를 조성했다.

이번 걷기 대회에서는 노래자랑과 '청해진 12군고' 등 다양한 축하 공연이 마련된다.

또 걷기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완도 특산물을 증정한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가족 단위 관광객 및 많은 군민들이 건강의 도시 완도에서 열리는 건강 걷기대회에 참여해 전국 최대 규모의 유채꽃 단지를 감상하고 건강과 활력을 충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하서 김인후 선생 유물 장성군에 기증

후손들, 7억원 상당

조선시대 대표적 유학자인 하서 김인후 선생(1510~1560)의 후손들이 7억여원 상당의 유물을 장성군에 기증했다.

필암서원 김달수 대종중회장은 지난 4일 장성군청을 방문, 하서 선생의 유물 3천795점을 이청 장성군수에게 전달했다.

유물은 (재)양영학원과 하서 학술재단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상흥씨가 매입해 기증한 것으로 조선시대 현판과 서책, 고가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이 하서 선생 유품으로 국가지정 보물 제 587호 노비보를 비롯해 문서와 상아홀, 현판 등 모두 29종 3천795점에 감정가는 7억3천여만원에 달한다.

특히 상아홀(象牙笏)은 관리가 관복을 입고 임금을 만날 때 손에 쥐던 물건으로 김인후 선생 가문 대대로 물려온 유물이다. 노비보도 18세기 필암서원에 속한 노비와 자손들의 인적사항을 족보 형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조선시대 관료문화와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장성=장필수기자 bungy@

광주일보 동부취재본부 개소

광주일보 동부취재본부(본부장 김동호)가 4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동부취재본부는 지난 4일 김진영 광주일보 사장과 박동수 순천시의회 의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사진〉

여수·순천·광양·구례·보성·고흥 등 동부권 6개 시·군을 관할하는 동부 취재본부는 전남 산업중심지인 동부권의 변화되는 모습을 심층 취재, 보도한다.

특히 오는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 준비 상황과 10월 전국체전 등 현안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동호 취재본부장은 "동부지역 독자들에게 보다 빠르고 깊이 있는, 생생한 뉴스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및 광고문의 (061-908-8111, 8000)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노인일자리 사업단 교육

곡성시니어클럽

곡성시니어클럽(관장 김년두)은 지난 4일 전남과학대학 대강당에서 조형래 곡성군수와 조용기 우암학원 설립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단 소양·직무교육'을 실시했다.

130여명의 노인들이 참석한 이날 교육은 노인과 사회, 노인과 경제, 노인들의 건강과 환절기 감기예방법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2002년 설립된 곡성시니어클럽은 옥설콩나물 공장을 설립해 그동안 55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유기농 야채 재배, 찾아가는 평생학습도 실시할 계획이다.

/곡성=장필수기자 bungy@

구례군, 대한민국 압화대전 배선아씨 '화조화' 대통령상

구례군이 주최한 제 7회 대한민국 압화대전에서 배선아(광주)씨가 출품한 민화병풍인 '화조화'〈사진〉가 종합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김씨는 민화를 압화로 재구성 하는 등 한국적인 풍경을 사실적으로 표현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풍경대상에는 김춘자씨의 '세계로 향한 새로운 도약', 디자인대상에는 권오재씨의 '호기심', 정물대상에 정혜연씨의 '결실', 공예대상에 신정옥씨의 '그리움'이 선정됐다. 이밖에 최우수상 9점, 우수상 46점, 장려상 90점, 입선 60점이 선정됐다. 당선자에게는 대통령상 700만원, 대상 2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20만원씩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19일 열리며 야생화 압화전시관에서 오는 5월 8일까지 전시된다. 이번 압화대전에는 국내 290점과 일본, 대만 등 7개국 190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